

1968年度의 公共圖書館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課長)

1. 序 論

1968 年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계에는 몇 가지 두드러지게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契機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圖書館界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陣痛期를 결한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발전적이며 跳躍的인 中興期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要點만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 公共圖書館設置 5 個年計劃

文教部에 의하여 수립된 공공도서관 설치 5 個年계획이 1968 年을 1 次年度로 하여 드디어 실천에 들어가는 점이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까지는 여러가지의 난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1966 年 12 月에 개최되었던 전국 공공도서관 회의에서 「전국 市, 區, 郡單位 공공도서관설치 3 個年계획안」이 작성된 것이 시초인데 이안을 작성하여 1967 年 1 월에는 관계 各部長官과 立法部의 正, 副議長, 文公委員會 의원, 內務委員會 의원, 各道知事 및 市道 교육감에게 보내어 공공도서관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 안은 특히 문교부의 적극적인 배려로서 「도서관정책 수립 실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안에 대한 정책적인 심의를 거듭한 끝에 1968 年도를 제 1 次 年도로 한 5 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豫算으로서 1 億원을 計上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발맞추어 공화당에서도 「공화당 100 가지 공약」 가운데 공공도서관을 많이 설치할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이의 실현은 훨씬 밝은 전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豫算上 1968 年도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하여서는 3,000 만원만이 확보되었는데 배당된 금액의 道別 통계와, 배당을 받은 道 자체의 부담금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第1表 1968 년도 정부 보조금액 및 자도별 부담액 명세표

도	별	1968 년도 보조금액	道 自 籌 부 담 金	비 고
경	기	6,000,000	8,000,000	1 個館 건립
강	원	2,000,000	2,000,000	"
충	북	2,000,000	2,000,000	"
충	남	2,000,000	2,000,000	"
전	북	2,000,000	2,000,000	"
전	남	4,000,000	4,000,000	2 個館 건립
경	북	7,000,000	7,000,000	"
경	남	5,000,000	5,000,000	1 個館 건립
계		30,000,000	32,000,000	10 個館

※① 5% 경비절약계획에 따라 실제로 영달된 보조금은 28,500,000원임.

② 전남 및 경북은 2 個館이나 기타 道는 각 1 個館임.

③ 경기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도서관 건립규모의 차이 때문임.

第1表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968 년도에는 10 個館이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문교부에 의한 5 개년 동안의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第2表 市, 郡, 區單位別 설치계획

구	분	설치현황			설치계획			비 고
		대상 지역 수	이미 설치 된 곳	아직 안된 곳	신설	확충	계	
郡	단 위	139	25	114	114	23	137	기준도달 한 6개관 은 제외
市	A 단 위	21	12	9	9	11	20	
	B 단 위	8	8			7	7	
區	단 위	20	4	16	16	2	18	
계		188	49	139	139	43	182	

※① 설치계획중 「확충」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도서관을 앞으로 확충한다는 뜻임.

② 第1次 년도인 1968년에 10개관을 설치 중이므로 앞으로 4년동안에 129개 도서관의 신설과 43개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3. 公共圖書館部會의 組織

한국도서관협회 定款 第8章 部會 및 委員會 第26條에 보면 公共, 대학, 학교, 특수 및 기타 필요한 部會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도서관협회가 창립된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나 지금까지 전연 실시를 보지 못하였었다.

제26조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넓은 뜻에서의 같은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공공, 대학, 학교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기 관종별에 관계되는 공통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부회 조직의 근본 정신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서관 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으므로 관종별로 야기되는 문제점이 클로즈업 되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즉, 각급 도서관의 사회적인 발전, 전문직으로서의 司書직원수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늘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도서관협회의 입장으로 볼 때, 또는 도서관협회에 주어질 사명으로 볼 때, 관종별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어떤 조직체를 만들도록 했어야 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공공도서관관계 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관종 도서관에서는 별반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공공도서관의 所屬廳一元化문제, 職制 확립문제, 地方公務員令 改正문제, 亡失圖書處理 法制化문제, 司書職任用문제, 司書職手當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자라났다. 그런데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목이 터지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어 왔어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해결 방안이나 또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도서관협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착착 해결하거나 또는 연구할 수 있는 部會의 조직을 일찍 조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으로 볼 때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로서 모든 공공도서관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8년 5월 27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公共圖書館長 會議라는 명칭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러한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극히 지역적이며 발전적인 모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의체의 조직이 도서관협회와 동류의 조직체를 따르며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공동관심사를 관련있는 기관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는 뜻 뿐이었다.

그 후 공공도서관장 회의는 공공도서관회의로 명칭이 바뀌었고 동 회의 상임연구위원회에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드디어 1968년 4월 25일 全州市立도서관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공공도서관회의에서는 도서관협회 정관에 따른 「공공도서관부회규정안」을 채택하여 한국도서관협회로 하여금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部會조직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기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1968년 6월 21일에는 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部會 조직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따른 부회 조직이었으므로 앞으로 공공도서관 부회 조직과 같은 조직이 기타 관종에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현상은 극히 당연한 발전이므로 오히려 하루 속히 타 관종에서도 부회를 조직하여서 관련된 때까지 문제점을 신중히 심의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196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공공도서관회의는 동년 10월 30일~31일 2일간 釜山市立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요지와 같이 결정, 발표, 또는 선출되었다.

1. 부회 규정에 따른 상임 연구위원.

제주도립, 부산시립, 청주시립, 대구시립, 광주시립, 전주시립, 대전시립, 춘천시립, 수원시립, 증로, 南山, 각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 협력과장,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

2. 회장단

회 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부회장 부산시립도서관장

3. 결의사항

a. 공공도서관의 등급 재조정

A급 서울, 부산 및 각 도청소재지의 시립도서관.

B급 A급 이외의 시립도서관(제주도립도서관 포함)

C급 군립도서관 및 기타(단, 하위급 도서관이

라도 상위급 도서관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도협회비 및 부회비 책정

A급 도협회비 14,000
부회비 11,000
계 25,000

B급 도협회비 7,000
부회비 5,000
계 12,000

C급 도협회비 4,200
부회비 2,800
계 7,000

c. 1969년도 사업계획,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d. 次期 부회총회를 晋州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도서관에서 개최.

e. 研究發表
論 題

1. 書式 통일문제

演士 忠州도서관장 李鴻球

2. 참고 업무의 실제

演士 부산시립도서관 박종갑

f. 특별강연

1. 文學과 讀書

演士 釜山大學校 教授 김종출

2. 文化發展과 도서관

演士 東亞大學校 教授 정중환

g. 建議사항 채택

1. 공주시립도서관 폐관반대 건의

忠南 公州郡立도서관이 군당국에 의하여 폐관 조치 단계에 이른 점을 重視, 폐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

2. 大邱市立도서관의 조속한 청사 건립 촉구

大邱市立도서관은 도청소재지이며, 특히 우리나라 三大都市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독립된 도서관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여 조속한 건립을 촉구.

3. 馬山市立도서관의 조속한 건립 촉구.

4. 도서관 昇格문제와 소속청 一元化문제 촉구
도청 소재지의 시립도서관을 道立도서관으로 승격시킬 것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문교부 소속으로 一元化할 것을 촉구.

4. 全國公共圖書館會議

1968년 4월 25일 全州市立도서관에서 第4回 전국공공도서관회의를 겸한 第7回 공공도서관대회를 개최 하였

다. 前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회의에서 圖協 部會 조직에 대한 안이 채택되어 圖協에 제출키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토의된 案件 및 기타 중요한 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主要 심의 案件

번호	내 용	해결	미해결	진행중
1	재정 확보문제		×	
2	소속청 一元化문제		×	
3	상호貸借문제	○		
4	書式 통일문제	○		
5	職制 확립문제		×	
6	司書 교육문제	○		
7	亡失 도서관 法制化문제		×	
8	도서관 증설문제	○		
9	地方 公務員 令 개정문제		×	
10	대우 개선문제			△
11	도서관 현장 제정문제	○		
12	순회문고 운영문제	○		
계		6	5	1

이상과 같이 당면한 현안 12件중 해결된 것이 6件, 未解決 5件, 진행중인 것이 1件으로 되어 있는데, 미해결된 5件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서 해결을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것 역시 앞으로 반드시 해결토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야 할 문제이다. 항을 달리하여 다시 논의하겠다.

b. 이 회의에서 발표된 研究論文은 다음과 같다.

題目 :

1. 公共圖書館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길

演士 全州市立도서관 宋光烈

2. 現行 도서관법의 問題點

演士 大邱市立도서관장 崔在元

3. 政府 기구 개편에 따른 도서관의 문제

演士 國立中央도서관 李承周

4.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길

演士 春川市立도서관장 曹尙鉉

c. 본 회의에서 채택된 建議文抄

1. 도서관법의 개정

현행의 종합 도서관법을 국립중앙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및 특수도서관법으로 각각 독립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토록 요망.

2. 사서직 수당 지급 촉구

공무원 제 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서직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망.

3. 私設도서관의 규제

술日 개관으로 인한 풍기문란, 위생시설의 미비 등은 중대한 사회문제가므로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요망.

4. 경주시립도서관 증축

新羅 문화의 발상지인 국제관광도시의 경주의 유일한 문화기관인 시립도서관을 증축하여 줄 것을 요망.

d.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부회규정안

前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회의에서 본 규정안을 채택, 도협 이사회에 상정시키도록 하였다.

5. 司書職 養成講習

正, 準司書 자격을 부여하는 강습회 개최에 대한 비판이 특히 도서관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측에서 많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4년제 정규 대학과정을 나와야 정사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불과 320시간 정도의 강습으로서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므로 인한 비난으로써 필자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부터 반대해 온 사람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1968년에 2회에 걸쳐서 강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현재 각급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복잡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주최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부득이 강습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격증이 없으므로써 다년간 봉직해온 도서관을 떠나야 하는 사실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도서관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4개처, 그리고 1년과정의 도서관학 이수 과정이 2개처 있어서 1968년 봄부터는 약 150명 정도의 졸업생 및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효가 수요를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에 있어서의 전문적 보충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현직자로서 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분이나마 훈련하여서 채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서이다.

앞으로 적당한 시기를 보아 이러한 강습은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준사서 자격소지자의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은 얼마 동안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현 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강습이 앞으로 실시됨으로써 재직자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도서관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봉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도서관인 상호간의 우의

와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68년도에는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에 걸쳐 2회 실시하였다.

正司書 및 準司書敎育課程과 배당 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다.

a. 正司書課程

必須科目(괄호 안은 시간수)

도서관조직 및 관리 (20)

도서관사 (10)

목 록 법 (70)

분 류 법 (70)

자료선택 (20)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35)

선택科目

古書목록법 (30)

도서관과 사회 (40)

서 지 학 (25)

b. 準司書課程

必須科目

도서관조직 및 관리 (20)

도서관사 (10)

목 록 법 (70)

분 류 법 (70)

자료선택 (20)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35)

선택科目

시청각자료 (30)

한국서지학 (25)

도서관과 사회 (40)

이상과 같이 각각 320 시간이다.

한편 강습 이수자 수는 다음과 같다.(2회를 합한 것)

正司書	27명
準司書	55명
계	82명

6. 司書職待遇 改善問題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年末의 현안 문제로서, 특히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적 전체의 사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도서관이 제 구실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와 직결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낱 口頭彈에 그치고 만 느낌이 있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9 면에 계속)

失望은 大端히 클 것인 바 圖書館事業이 奉仕事業이라고 한다면 他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資料를 圖書館 相互間에 貸借하여 利用者에게 提供하게 되는 때 圖書館에 대한 利用者의 信望과 信賴는 豫想 以上으로 큰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完全한 奉仕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67 年부터 一部 圖書館間에서 論議되다가 國立中央圖書館의 積極인 努力으로 아래와 같은 圖書館들이 圖書館藏書相互貸借의 契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保留中)

國立中央圖書館

國防大學院

國會圖書館

南山市立圖書館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서울大中學校 附屬圖書館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保留中)

梨花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

鍾路市立圖書館

韓國研究院

現在도 一部 圖書館間에는 相互貸借가 活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에서도 施行되고는 있지만 相互貸借로서 奉仕를 積極化하려면 綜合目録이 이루어져야 하고 綜合目録을 編纂하려면 資料의 完全整理가 先行되어야만 萬全을 期할 수 있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 事實이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을 爲始하여 몇몇 圖書館에서는 이미 藏書目録이 刊行되었다. 各圖書館이 個個圖書館의 藏書目録을 刊行해야하고 나아가서 綜合目録이 刊行되어야만 汎全國的인 藏書相互貸借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바 이러한 事實이 早速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結 言

圖書館事業을 育成하는 事業이라고 한다. 1968 年의 大學圖書館은 이미 씨가 뿌려 졌고 肥料도 若干 주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太陽의 빛이 必要하게 되었고 때때로 肥料가 주어 지면 잘 자랄 수 있는 處地에 있게 되었다. 알뜰하게 가꾸어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져서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5 面에서 계속)

단지 정례적인 건의문에 포함하거나 각종 도서관대회에서 떠들어 대는 따위로서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8년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이 가하여 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즉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암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대우개선 문제에 노력하였다. 문교부의 이해와 경제기획원의 협력에 따라 예산책정속에 포함되었으나 정부에 의한 건축예산편성방침에 따라 부득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그후 다시 국회로 예산안이 회부된 이후 문공위원회에서의 토의에서 사서직원의 대우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예산안에도 없던 것이 다시 삽입되어 소생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으나 마지막 계수 조정에서 전기한 바와 같은 정부의 건축정책에 따라 최후 순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68년에는 위에서 간단히 기술한 바와 같이 거의 성취단계까지 밀고 갔던 것이나 오는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꼭 성취함으로써 年來의 공공도서관계의 숙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해결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관계 각 기관과 이에 관련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총력이 합쳐져야 할 것이므로 도서관인들은 이의 성취를 위하여 더 한층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7. 結 言

1968년도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계의 움직임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을 추려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들의 숙원이 1968년도에 달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으로서 굴복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밀고 나아가갈 때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숙원중의 하나이던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이 1968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실천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